

'강남8학군' 지역의 형성: 장소형성에 나타난 한국적 특성

The Making of Most Preferred '8th School District' of Gang-nam, Seoul, Korea: A Case Study of Place Identity Formation

오기노지히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chinma@snu.ac.kr)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인 현상을 잡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과정을 밝혀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대 한국인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다니며,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그런 지역 중 '강남8학군' 지역이 가장 유명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군이 좋은 동네'라는 인식은 74년의 고교평준화를 계기로 나타났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강남 지역의 학령기 인구 점유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던 이유는 80년대 초반 강남에 대학입시 성적이 좋은 고교가 집중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시기는 한국 전체의 학령기 인구와 강남 지역의 학령기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2. '부촌'이라는 강남의 장소성은 80년대 중반까지 형성되었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강남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인구증가율과 택지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 지역 주민의 사회계층적 특성과 생활수준 등은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다른 '부촌'보다 규모가 커서 다양한 성향을 지닌 인구를 수용할 수 있었다.

3. 중산층은 다른 계층보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고, 비슷한 가치관과 생활스타일을 지닌 집단끼리 모여 사는 경향이 있어 교육 및 교육 외적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지역이 형성된다. 이런 지역 중 강남이 여의도·동부이촌동·목동·분당 등의 지역보다 큰 흡입력을 지니게 된 이유는 '부촌'의 규모가 커서 학군을 대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촌' 강남의 형성 시기가 한국사회에서 중산층 등장·신시가지 형성·학령기 인구 최고·고교 평준화 실시·명문고의 강남이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와 겹쳤기 때문이기도 하다.

4. 한국사회에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이 형성된 이유는 한국 근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점, 사회변동이 자주 일어난 점과 관련이 있다. 한국사회는 잦은 사회변동으로 인해 사회 및 개인이 '단절'·'변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또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과거와 단절된 형태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일류대 입학기회, 교외 신시가지 등의 측면에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